

주정업계, 농협중앙회와 “주정용 감자 공급 상생협약식” 체결

주정업계를 대표하여 (사)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이하 주류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는 2014년 5월 8일(목)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저장감자 재고물량 처분을 통한 감자 가격유지와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주정용 감자 공급 상생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주정업계는 보리, 밀, 고구마 등의 국산원료 및 정부미 등의 안정적 소비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정부양곡 수급 정책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과거 자연재해로 발생한 수침미 및 과잉 생산된 배 등도 주정용으로 특별 사용함으로써 농민 보호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년도별 주정업계 국내원료 구매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정부미	160	412	614	383	241
국산원료 (보리, 밀, 고구마)	420	453	432	373	517
계	580	865	1,046	756	758



특히, 작년부터는 보리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보리 수급의 안정을 위해 '주정용 보리 생산단지' 조성으로 농가엔 생산기반 안정을, 주류업체엔 안정적 원료 공급이라는 상생 활동도 시행하고 있는 등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2014년 3월경부터 2013년산 감자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감자 재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내 주정업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감자는 다른 원료에 비해 수분이 많아 주정원료로 사용하기에는 분쇄문제, 수율문제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주정업계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감자 1만여 톤을 주정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주정용 감자 공급 상생협약식' 을 통해 지역농협과 농가에서 보유 저장중인 감자중 10,301톤을 주정업체가 인수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농협과 농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자 재고의 60% 수준 물량으로 이번 특별처분이 헛감자 가격지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자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주류협회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향후 농민의 어려움이 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여 농가의 생산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주류협회 권기룡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주정 회원사들이 과잉 생산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 줌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으며,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감자뿐만 아니라 소주 원료로 기존에 공급했던 보리, 고구마 등 국산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은 "과잉 생산된 국산 농산물이 주정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정업계는 이번 과잉 생산된 감자의 주정용 사용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농민이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